

실참 경험 풍부한 지도자 확보가 관건

조계종 '간화선 기본수행 프로그램' 성공 열쇠는?

조계종이 2002년부터 준비해온 '간화선 기본수행 프로그램' (이하 간화선 프로그램)이 조만간 베일을 벗는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서울 불광사, 봉은사와 함께 3월부터 간화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간화선 프로그램이 일차적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들이 적지 않다. 특히 간화선 프로그램의 성패(成敗)를 좌우할 수 있는 '지도자'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화선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수행해온 지도자만이 '초보' 수행자에게도 올바르게 간화선 수행체계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선원과의 정보 교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간화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 가장 하고 싶은 수행 '참선'

조계종 포교원이 2004년 1월 발표한 '신도수행의식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띈다.

현직 포교사와 신도전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신도 1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수행법은 참회기도 32%, 염불 26%, 참선 17% 등이지만, 가장 배우고 싶은 수행법은 참선 59%, 염불 12%, 참회기도 10% 순이었다. 이 설문은 "불자들이 참선을 해 보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하기에는 난관이 많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 참선(간화선)을 배우 싶을수록 수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 고명석 포교연구팀장은 "이미 수 년 전부터 불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수행 열기는 높아지고 있다"며 "중단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간화선을 보급해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대중들의 수행 열기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 바로 간화선 프로그램이다. 이번 간화선 프로그램은 그동안 산중에만 머물러왔던 간화선을 일반 불자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총 11주에 걸쳐 간화선 공부

간화선 프로그램은 모두 11회에 걸쳐 진행된다. 불교대학 등 중등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간화선에 입문한 불자 각 42명을 대상으로 불광사와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문을 열어 '선으로의 초대' '양변을 여는 자유로운 삶-간화선과 중

도, 연기' '지혜의 길, 자비의 길-간화선과 무아, 공' '간화선과 무한향상의 길' '간화선 이해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기초 불교교리와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다.

이어 간화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두'를 들고 직접 실참(實參)하는 과정이 계속된다. '화두 알기와 들어보기' '화두 속으로' '간화선 수행체계 이해하기' '생활 속의 화두' '수행공동체의 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소장 현종 스님은 "짧은 시간에 쉽게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긴 하지만, 11주 동안 간화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간화선 프로그램은 일반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해당 계층 불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3-4월 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간화선 프로그램은 집중력 향상과 학습효과 증대는 물론 불교적인 심성과 인성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영화 등의 각종 시청각 자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간화선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용어를 순화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게임을 활용해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청소년 간화선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동대사대부속여고 박영동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간화선 용어를 쉽게 풀이한 자료집을 만들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쉽게 간화선을 이해할



지난해 3월 서울 금강선원에서 진행된 '간화선 프로그램' 시범 운영 모습. 참가자들이 '수행담 나누기' 시간에 수행 경험을 토론했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3월부터 불광사 봉은사에서 본격 실시... 이론과 실참 병행 지도자 양성기관 설립·자격요건 정립해야 참선 지도해온 시민선원과의 교류도 과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밝혔다.

■ 프로그램 연구자를 지도자?

그러나 이러한 간화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간화선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확보하는 문제다.

옛 선사들의 여러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간화선은 스승의 올바른 지도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우선 올해 시작되는 간화선 프로그램 지도는 기존에 프로그램을 연구해 온 조계종 스님들과 관련학자 등 10여명의 관계자들에게 맡길 방침이다. 당장 프로그램 운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정형화

된 프로그램 교안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간화선 프로그램 연구자들이 올바르게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종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간화선 프로그램 교안에 지도자 지침을 정리해 놓긴 했지만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 이상은 아닌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은 "지도자는 간화선 수행관과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으로 출제자를 마련하고 수년간 수행해 온 사람이어야 한다"며 "간화선 실참보다 교학적 연구를 주로 해온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서지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의 지도자 확보와 양성도 중요하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해 10월 18-19일 대구 동화사 비로암에서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토론회' 결의를 받아 가정 '간화선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선원장스님들과 학자, 종무기반 소임자, 재가자 등 지침을 정리해 놓긴 했지만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 이상은 아닌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적절한 간화선 프로그램 지도자 요건은 무엇일까? 조계종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스님은 4년 이상, 재가자는 실참 경력 3년 이상 정도로 우선 자격을 잡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깊이 있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실참을 해온 스님과 재가자들이 지도자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이론과 실참'을 겸비한 수행자들이 지도자로 나서느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선원장회의와 수좌회도 프로그램 준비를 같이 해온 만큼 내년부터는 적절한 스님들을 추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대중화에 매몰돼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안 된다"며 "선원장회의나 수좌회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사람들을 우선 지도자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운영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 효과

지도자 문제와 함께 전문가들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프로그램이 '간화선'에 근거해 정립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리한 것처럼 현재 각 계층별 프로그램은 '눈높이' 운영을 지향하며 각각의 연구팀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화선의 이해를 돕는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상당'이나 '놀이' 등의 부수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달'이 아닌 '손가락'에 집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성천문화재단 김홍근 연구실장은 "간화선 체계를 이해하고 정경(正見)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할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간화선에 다가가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내비쳤다.

또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선원과 사찰과의 지속적인 교류도 중요하다. 간화선 또는 조서선 수행을 주장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시민선원은 전국에 약 50여개에 이르고 있다.

특정 수행법을 놓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각 선원별로 수년전부터 계속해온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질 수 있다. 부산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은 "조계종의 간화선 프로그램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공통적인 수행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해 서울 조계사와 금강선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시행된 시범 운영을 발판으로 진행되는 간화선 프로그램은 조계종이 올해 10대 핵심사업과 21개 주요사업중 하나로 꼽을 만큼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 성공여부에 불교계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취재팀·한영우·노병철·유철주 기자

http://cce.khu.ac.kr 열린 대학교육 · 평생교육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생모집

기문명리학	사주, 작명, 택일, 양택, 단시 등을 기문역학으로 파악하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과정 홍국수의 기본바탕 오행의 원리와 기문으로 풀이하는 개인 유형별 사주해단 방법 ● 수 19:00 ~ 21:00 (2학기과제) 학기당 200,000원 ●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웰빙관상학	우리 얼굴, 신체 모든 부위의 형태와 기색을 살펴 운영 변화, 풍수 등 웰빙법 연구 골격과 살집의 미학, 심이공과 심삼부위, 성형미학과 출세, 얼굴의 색깔과 운명교정 학습 ● 월 10:00 ~ 12:00 (2학기과제) 학기당 200,000원
한국 전통 민속 문화	한국인의 전통무속신앙, 자연숭배사상, 풍수지리를 연구, 현장답사 및 실습체험 ● 금 19:00 ~ 21:00 (2학기과제) 학기당 200,000원
한문해석법	체계적인 한문해석법 습득과 「명심보감」「동몽선습」「계몽문」독해, 중국시, 한국시 감상 ● 월 14:00 ~ 16:00 (15주과제) 200,000원 ●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한시 창작	한시의 역사와 작법을 습득하고 고문 이해, 명시 감상 및 창작을 통한 한시장르 연구 ● 목 10:00 ~ 12:00 (15주과제) 200,000원

▶ 특전: 경희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 도서관 이용 ▶ 접수기간: 2006년 2월 24일(금)까지 (방문접수: 평일)

■ 개 강 : 2006년 3월 2일(목)부터 각 강좌 해당 요일
 ■ 접 수 처 : 동대문구 회기동1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내오르네상스관 2층)
 ■ 문 의 처 : Tel (02) 961-0870~2 홈페이지 http://cce.khu.ac.kr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통안내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 1번출구(마을버스 경희대학교 정문 하차)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정토불교대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정토불교대학이 2006년 2월 28일(화)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개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불자들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정토불교대학에서 법륜스님의 살아있는 영상법문을 만나보십시오.

▶ 2월 28일 - 12월 12일 매주화요일 1년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지역법당	문의처	교육시간	교육내용
서울 정토불교대학 (주/아)	02)587-8993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 실천적불교사상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 ● 부처님의일생 - 인간보다 그 위대한 삶 ● 근본불교 -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길 ● 불교변천사 - 불교사 사회역사 변화와 불교변천
부산동래 정토불교대학 (주/아)	051)557-2746		
부산해운대 정토불교대학 (주/아)	051)747-9997		
대구 정토불교대학 (주/아)	053)744-3025		
마산 정토불교대학 (주/아)	055)247-8991		
울산 정토불교대학 (주/아)	052)245-8995		
대전 정토불교대학 (주/아)	042)253-8990		
청주 정토불교대학 (주/아)	043)284-5951		
광주 정토불교대학 (주/아)	062)511-8990		
정읍 정토불교대학 (주간)	019-308-2731		
김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17-530-4311		
제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43)648-0083		
제주 정토불교대학 (야간)	016-739-7885		

● 정토불교대학 특전

- ◇ 초심자 입문교육
- ◇ 기도정진 및 나누기
- ◇ 야외법회 실시 - 사찰순례
- ◇ 수행점검 및 법사님 상담
- ◇ 특강수련 실시
- ◇ 졸업수련 실시
- ◇ 봉사활동 및 환경·통일·복지특강

● 모집안내

- ◇ 접수기간: 2006. 3. 31일 까지
- ◇ 대 상: 바른불교를 찾고자하는 모든 사람
- ◇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 동 참 비: 12만원(1년제) ◇ 문의: 각 지역법당 www.jungto.org

정토회 정토불교대학
Jungto Society